

가정예배 안내서

2

1993

충현의 만나

신명기 10:1~23:25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신명기 10:1~23:25

2

1993

2월의 기도 제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을 위해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충만을 위하여
4. 기도원에서 모이는 교구별 기도운동을 위하여
5. 전 교구의 영적부흥과 배가성장을 위하여
6. 교회학교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
7. 대통령 취임식과 새 대통령의 공의로운 정치를 위하여



하·늘·에·서·는·영·광·땅·에·서·는·평·화

충현의 만나

1993년 2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1월호 집필을 위하여 조동원·한용관·성봉환

조운재·이종대·정광욱 목사님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 신명기 서론 *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언약을 세우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인용된 성경이기도 하다. 신명기의 주제는 언약의 갱신이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다. 그들이 겪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모세와 함께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없다. 모두 다 새 세대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모들과 맺었던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 시켜 주는 것이 필요했다. 그들과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헌신케 하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언약은 여호수아 당시(수24장) 세겔에서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도 갱신되었다.

신명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 받는 안식과 축복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경고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돌비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되었다. 새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10:5)

본문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언약을 회복해 주신데 대한 회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다듬어서 산에 오르고 그 돌판을 보관할 궤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1-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차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보관케 하셨습니다(4, 5). 이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파기된 언약 상태가 온전한 상태로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모세에게 주신 돌판을 깨뜨리셨습니다. 언약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의 두 돌판을 궤에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와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엡 6: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여호와와 축복이 임하는 한해가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10:20)』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 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참된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는 참된 섬김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순종하며 존귀와 모든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영육간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신 11:1-32). 성도는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영광스러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결음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각자가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피 말씀으로 왕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11:8)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결코 주의 말씀과 규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적으로 하는 거짓된 사랑을 싫어하십니다.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알되 확실히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알지도 못한 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지도 못한 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이요,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훈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자녀는 실제로 자녀들이라고 원문에는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가르치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교육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강성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킬 때, 자녀들이 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권함을 주옵소서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11:32)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13-15, 21-25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범죄하지 말라는 경고(16-17절)와 함께 자녀교육을 상기 시키고 있습니다. (18-2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을 살펴보면 첫째, 장차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14절).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란 각각 파종기(10, 11월)와 추수기(3, 4월)에 내려 파종과 결실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비로 영적으로는 때를 따라 성도를 돕는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둘째,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리라는 것입니다(21절).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까지 즉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과 평강을 가르칩니다. 셋째, 어떠한 원수의 강력한 세력 가운데에서도 번영하며 부강하리라는 것입니다(23절). 넷째, 대적들이 두려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25절). 이것은 영적으로 세상과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입은 성도들을 결코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더불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임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 **기도** /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목양 사역에 철배의 영력을 주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것처럼 행하지 말고…… 여호와와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12:14)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도 끝나고 곧 췌과 꿀이 흘러 넘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생활도 다르고 예배하는 방식도 달리해라. 예배하는 장소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의 신전, 우상을 모두 깨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그 땅의 문화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심지어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죽여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이든 현재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족속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배 대상, 예배 의식, 예배 장소, 무엇보다 예배의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땅 백성들은 앞 일이 잘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아뢰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기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하였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바램을 아뢰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뱃사에 감사할 제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충현의 은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에 영육간의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12:25)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23절). 따라서 피를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생명에 대한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창 9:4 ; 레 17:11 ; 민 16:22)

또한 이방 종교는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마시면 신들과 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종교의 제사 풍습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풍습은 무속적이며 미신적이기에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금지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피를 땅에 쏟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피를 먹지 않음의 표현이며, 이방 종교의 제단에 부을 염려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 피 먹는 일을 금한 것은 생명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며,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의 태도입니다. 또한 피는 죄를 덮어 깨끗하게 하는 속죄를 의미하는 신성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속죄의 예표입니다. (히 9:22)**

이 금지법을 지킬때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여기시며 복까지 주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지켜 행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 **기도** /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는 죽이라 …… 너를 꺾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13:5)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는 언제나 그가 명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가족이나 친구 혹은 다수의 군중들이 그 길을 굽게 합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며 섬기는 방법을 바꾸자고 유혹합니다.

어떤 때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자들을 좇지말며, 듣지말며, 긍휼히 보지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하면 수효가 번성케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 도시의 대학에 입학하여 서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 갑자기 아들의 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방의 사면 벽에는 인기 여배우의 반나체 사진이 즐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색을 하지않고 가까운 사진관에 가서 자신의 사진을 찍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달 후에 그 어머니가 아들의 방을 찾았을 때는 벽은 깨끗히 정리되어있고 책상 머리에 어머니의 인자한 사진이 걸려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여배우들의 사진을 왜 치워 버렸느냐고 묻자 아들은 겸연쩍게 웃으며 “그 사진들을 어머니 사진과 같이 붙여 놓는 것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도 다른 어떤 우상이 같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기도 / 우리의 삶에서 이방 종교의 모습은 없어지게 하옵시고, 오늘도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방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의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소서.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말라.』(14:3)

하나님의 백성이 금해야 될 부정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① 네 발 달린 짐승 중 통굽(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가진 짐승이나 되새김질을 않는 짐승입니다. ② 어류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입니다. ③ 조류 가운데는 맹금류나 죽은 시체를 먹는 새들입니다. ④ 곤충 가운데서는 날개가 있어 날기도 하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긴 다리가 있어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⑤ 스스로 죽은 것들은 피가 고기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위에 나열한 다섯 가지는 성질이 사납거나,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 신약성경은 또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롬 14:14 ; 딤후 4:4). 본문에 나타난 음식의 엄격한 구별은 구약시대 특히 유대인들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는 조금이라도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의 복잡한 제사 규례나 음식의 규례와 같은 의식적(儀式的)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날에 까지 지키도록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딤후 1:15)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 규례에 순종했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청지기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14:22)

십일조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으신 것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십일조는 소득의 1/10을 떼어 레위인에게 바칩니다. 레위인은 그것 모두의 1/10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민 12:26). 나머지 9/10의 1/10을 다시 떼어 온 가족이 성전에 와서 벌이는 잔치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둘째 십일조라 합니다. 이 둘째 십일조는 매 3년마다 따로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 미국의 실업가 하이드는 서점을 경영하여 거부가 되었으나 1887년 경제공황으로 실패하고 10만 달러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치 않고 오히려 집을 팔아 사회단체에 약속한 기부금을 내고 물론 십일조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자네 지금 정신이 있는가? 현금이나 기부는 돈을 벌은 후에하고 빚부터 갚아야 되지 않는가?” 하이드의 생각은 한결같이 “물론이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진 빚을 먼저 갚으려고 하는 걸세” 3년 후 하이드는 맨소래담 회사를 창립하고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더욱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1/10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 시간 마음과 몸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는 참다운 십일조 생활과 십일조의 정신을 이해하는 성도입니다.

▶ 기도 /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 부터 왔으며 주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성도들의 각 가정이 영적으로 배가되게 하시며 각 구역들은 영적으로, 양적으로 배가되게 하옵소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15:11)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연환경 기타 여러 요인 때문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권리 보다는 의무를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모든 율례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사 10:2). 둘째, 성도는 가난한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물질로 인하여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고후 9:7). 셋째, 세상에는 항상 빈부의 격차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마 26:11). 넷째, 구제할 때에는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롬 12:8). 다섯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 11:24)

****** 세상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언제든지 손길을 뻗칠수 있는 마음과 실제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바라는 만큼 충분하고 넉넉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조금도 이해타산적이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 조차도 모르게 합시다

▶ 기도 / 우리 손이 넉넉하여 마음껏 구제하고 면제해 줄 물질과 마음을 주옵소서. 봉사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청지기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16:3)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늘 불쾌하고 비참한 일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활이 어둡고 부정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즐겁고 유쾌하였던 일들을 더듬으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밝고 긍정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평생에 기억할 것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지내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소망이 없는 죽음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의 손을 펴서 구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날은 새 역사의 출발점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 우리 개인 개인에게도 죄악의 세상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사건을 평생 기억해야만 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 기도 / 주님! 금년에도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16:10)

오늘은 칠칠절, 즉 유월절을 지난 후에 49일이 되었을때 지키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보리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킬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첫째, “네게 복을 주신대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복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 재능, 시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네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없이 이성(理性)없이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잘 생각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자원하여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기쁜 심정으로 감사하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럴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복될 것입니다.

******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정리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주신 하나님께 힘껏 자원하여 예물을 드림으로써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 기도 /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표적과 역사가 따르게 하소서.

『칠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宴樂) 하되』(16:13, 14)

오늘은 초막절, 수장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년의 추수를 다 끝냈을 때 드리는 감사절기로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추수하여 저장한 후에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收藏節)이라고 합니다. 또 40년 광야생활을 할 때 초막집을 세워 지낸 것을 기념한다고 해서 초막절(草幕節)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복 받은대로 예물을 힘껏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빈 손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각자 힘껏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잔치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같이 잔치하라고 하였고, 가족만이 아니라 외로운 이웃과 더불어 잔치하라고 하셨습니다.

**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수장절의 정신을 추수감사절에 되살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온 가족이 감사하며 잔치하도록 하고, 외로운 이웃과 함께 잔치할 계획을 미리 세워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 기도 / 주님!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끼리, 또 외로운 이웃을 찾아 함께 감사 잔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교회 모든 위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게 하소서.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16:19)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 때에만 그 법은 법률로써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할 때에도, 공무원이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일을 처리할 때에도,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에도 같은 규정에 의해서 사건을 처리해야만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별 힘이 없는 연약한 서민들은 부당하게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그 사회와 국가는 점점 불의하고 불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힘있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잘못대로 순서는 순서대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뇌물을 받지말라” (19절). 뇌물을 주고 받고 하는 일이 여기 저기서 사라질 때, 그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이 날개를 달고 판을 치면 그 사회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 호주의 수상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차에 탄 모습이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내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도 공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려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 기도 / 주님! 뇌물과 불공평과 새치기 등이 사라지고 질서와 공평이 꽃피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각 교구 위에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배가의 성장을 주옵소서.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17:12)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이란 말이 세번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2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7절),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12절)

하나님께서서는 결단코 악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악 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서, 성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그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나 자신과 가정이 지금 알고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중단하고 고치고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기도 / 주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복한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남복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17:19)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의 제도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며 그 왕의 생활 지침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이란 군사력, 혹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두어서 군사력이 막강하게 되면 왕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존하게 되며 선민의 신앙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면 향락에 빠져 왕의 임무를 다 감당하지 못 할뿐 아니라 나라 전체도 필경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고 했습니다(왕상 11:3-4).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세째로, 왕된 자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왕이 재물을 탐하면 그 백성들은 결국 궁핍과 도탄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왕된 자는 율법서를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또 왕의 정부가 왕 개인의 기분이나 포학성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왕위가 장구하리라고 했습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새 대통령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만 의지하고 깨끗한 정치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와 불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섬기고 높이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18:2)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 지파의 기업과 그들이 받을 음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의 직을 그외 사람들은 종교교육, 찬양, 성전봉사들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봉사이므로 세상의 일과 겹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열 한 지파와 같이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게 했을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와 같이 먹을 음식을 제정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기업을 가져 크게 잘 살고 부유하게 살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지마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십일조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대우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파에 버금가는 대우 내지는 가장 좋은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십일조를 제한 십분의 아홉을 주셨지마는 레위 지파에게는 열 한 지파의 십일조에 해당되는 십보다 많은 열 한 부분을 주셨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처음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세상적인 직업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등 성역에만 전무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들이 성역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응분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이여 특별히 신령한 레위 지파인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것들을 탐내지 말게 하시며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혜충만 하셔서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고 주의 평화의 소리가 충만케 하소서.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것이니』(18:9)

본문 말씀은 가나안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지 말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을 쫓겨난 이유가 그들이 가증한 우상을 비롯하여 온갖 사악한 풍습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이들을 제물로써 불에 태워 죽이는 나쁜 풍속으로 아모리인들이 섬기는 몰렉의 제사 형식중에 하나였습니다. 인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술자는 점을 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는 자이고 요술하는 자란 보이지 않는 악령과의 교제 가운데서 놀라운 마술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들이고, 무당박수, 신접자들이란 악령과의 접촉을 통해서 점을 치거나 길흉을 말하는 사람들과 진혼자는 주문을 외워서 남에게 최면이나 마법을 거는 사람이고, 초혼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내세의 비밀이나 미래를 알아내는 자들인데 사울 임금은 이런 초혼자와 교제하여 자기의 일을 물어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곤 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좇는 가증한 행위임을 알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런 모든 미신적 행위는 단호하게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13절 말씀처럼 거룩함으로 완전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우상과 산당과 모든 미신의 가증한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선교사역에 역사하시고 가정 위에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19:10)

본문 말씀은 도피성 제도에 관한 규례입니다. 고대 근동의 법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했을 때에는 복수법을 적용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하고 상하게 한 자는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도 극형에 처해져야 하기에 대한 무모한 피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악순환에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의 제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제도이며 나아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그 생명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그 어떤 희생이나 댓가도 필요하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데 있어서도 아무런 댓가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품안에 피하여 그를 믿기만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돈이나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도덕적 윤리가 우리 삶의 도피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순간적으로는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썩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참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줄 것입니다. 예수께로만 피합시다. 할렐루야!**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건강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유병세 선교사(일본)의 사역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주옵소서.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19:15)

본문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증인 제도입니다. 죄인의 유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것과 위증한 자를 발각했을 경우 엄격히 보복법을 적용하라는 규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같은 규례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 9계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검증된 결과에 의해 재판 하기보다는 대개 증인의 증거에 의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두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증자에게는 그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규례는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반영된 규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지언정 어떤 형태로든지 남을 해하려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배후에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그들을 권위해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성도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평생토록 충현교회를 위해 충성하신 원로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늘 건강함을 주시고 남은 여생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준교 선교사(애굽)의 선교의 장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20:4)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우수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 그리고 치밀한 작전 계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사들을 격려할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2-4절). 또한 약혼이나 기타 개인적인 충대사유로 마음이 나뉘어 전쟁에 충실하지 못할 자들과 선천적으로 겁이 많거나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 보내라고 하셨습니다(5-9절).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전심전력하는 참된 용사의 유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영적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같은 승리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마 28:20)을 믿고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 기도 /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직분에 충성하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20:18)

이스라엘이 수행할 모든 정쟁은 거룩한 전쟁이란 의미에서 전쟁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읍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먼저 화친을 제의하고, 받아들이면 조공을 받는 조건에서 서로 평화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절하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는 화친을 제의하지 말고 철저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우실 때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어떤 죄악도 허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들은 도무지 돌이키지 않을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19-20절에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무차별한 파괴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과목은 작별하지 말라고 자상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 하나님은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죄를 즉시 즉시 회개하는 생활을 합시다. 또 불신자들의 우상숭배에 절대로 물들지 말아야겠습니다.

▶ 기도 / 불신자들의 죄를 배우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를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 충만케 하소서.

『너는 이와같이 여호와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21:9)

하나님께서 대속의 사랑을 예표해 주신 규례입니다. 시체는 발견되었지만 그 살해범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대속 의식을 주관할 책임자로 선정되었습니다(1-3절). 한번도 부리우거나 명예를 메인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대속의 희생 제물로 선정하고 물이 흐르는 깊은 골짜기에서 송아지를 잡아 대속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3-4절). 장로들은 성읍을 대표하여 손을 씻으며 살인사건과 무관함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5-9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든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간과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속죄의식은 흠없고 죄 없으신 자로써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려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감사, 감격하며 주님의 일에, 교회의 직분에 봉사, 충성해야겠습니다.**

▶ 기도 / 공의와 사랑의 주님, 대속의 사랑에 늘 감격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의 조화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를 통해 독일에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1:23)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는 머리와 손톱을 깎고 의복을 갈아 입히고, 그 부모를 위해 일개월 동안 애곡하게 하여 포로 전에 섬겼던 우상이나 이방 습관을 청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일단 아내로 삼으려 한 여인은 타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여 그녀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10-14절)

상속을 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장자는 반드시 장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15-17절)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장로들이 유죄 여부를 판단 한 후, 유죄가 인정되면 처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를 엄금하시는 규례인 것입니다. (18-21절)

처형된 시체는 해지기 전에 끌어내려 장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로 받아들여집니다. (22-23절)

**** 우리는 이상 네 가지 규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구별된(성별) 삶을 강력히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기도 /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롬 12:2)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충만한 은혜를 주소서

『너는 소와 나귀를 거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22:11-12)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전 14:33)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질서를 사람들이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며 돌볼 것을 원하시며 생활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웃의 재산권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워 두신 성별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세째, 어미와 새끼 사이의 사랑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네째, 생명의 존엄성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 재산권의 질서를 지키되 소극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남녀의 질서는 옷조차도 엄격하게 구별해서 입을 만큼 분명하게 선을 지어야 합니다. 어미 새끼 간에 연결된 애정의 질서는 날짐승 같은 미물의 것이라도 지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을 담보로 하는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존엄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실수로라도 피흘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곳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고 있는 질서가 무엇인지 살피고 이 한해 동안에는 그 질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합시다.

▶ **기도** /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거나 형제들을 실족케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자신을 살피는 삶이 되게 하소서. 김형선 한영자(뉴질랜드)와 이기성 박정아(호주) 평신도선교사의 출국준비가 잘 되게 하소서.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22:22)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문화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섹스 문화입니다. 소설, 개그, 영화, 드라마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섹스와 그에 얽힌 이야기가 소재입니다. 얼마전 천사의 미소 등과 같은 인간애를 주제로 한 영화가 한 두편 나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런 영화는 철저하게 개인화, 비인간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 사회 병리적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 뿐이라는 지극히 인도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병어리 소녀와 정상인 선생 사이에 싹튼 사랑을 통해 그 병어리 소녀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 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상한 목적을 가진 영화들도 먼저 육체적인 성관계와 동거생활로부터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섹스는 현대 서구생활에 깊숙히 뿌리 내리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성의 상업도구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 시대의 문화를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결혼 이외의 성 관계에 대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도덕 질서입니다. 그러나 20세기를 사는 우리의 주위에는 손만 뻗으면 섹스 요소가 만연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하나님의 질서 둘 가운데 한 쪽을 택하여야 합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시대의 문란한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 기도 / 점점 만연해 가는 사탄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신앙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와 그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23:1)

옛날에는 왕궁에서 일하는 환관은 모두 고자였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남자를 고자로 만들 때 고환을 압축하여 뭉개거나 절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이 상한 자 혹은 배인 자는 바로 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성을 주신 것은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생육과 번성의 원리를 일부러 거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 가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 신자, 전도의 기능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아 영적인 고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영적으로도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고전 9:16). 전도합시다!!**

▶ 기도 /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살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돕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
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23:24)

오늘 본문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어느 정도 베풀어야 하는지를 실
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말
라는 것은 형제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의미입니
다. 그러므로 돈을 꾸는 사람은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고 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생계가 급해 돈을 비는 것이기에 그 형제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동정이 있어야지 그 기회를 악용해 돈을 벌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이나 곡식 밭이 없는 형제는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 밭에
들어가 마음놓고 실컷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
일이나 곡식을 가져다가 부자가 되는 것은 도둑질이지만 그 자리에서 주
린 배를 채우는 것은 가난한 자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형제를 도
울 때 우리 기준에서 돕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에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
니다. 가진 자는 가난한 자의 어려운 환경을 이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부한 자에게서 도움을 얻되 꼭 필요한 만큼만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질서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제할 때 우리의 성취감을 만족시키
기 위해 구제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구제 방법입니다.
우리의 구제 기준은 상대가 배부르게 먹기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
지 않으면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
며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이 땅 위의 수 많은 배고픈 이웃들에게 말씀 안에서의 소망과
떡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
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소서. 금요특별집회 위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제6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자

• 찬송 / 172장, 179장

• 성경 / 롬 8:15-26

• 요절 /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도와 주신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 없으며,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1.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15-17절)

1) 신자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15절)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는 사단의 영의 소유자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질문] 15절에 “양자의 영”이란 누구의 영이란 말인가? <답>_____

2) 내재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수 있는가? 이는 성령이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녀라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3)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1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 신자는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 조금 없이 산다 해도 장차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 성령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18-26절)

1) 모든 피조물이 고난 중에서 탄식한다(18-25절). 이 세상에 사는 한 고난중에 살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삶에서 어쩔수 없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부패한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장차 누릴 영광과 자유이다.

[질문]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 중에 살되 어떻게 해야되는가? (25절)

(1) _____ (2) _____

2)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26절). 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가?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이다.

[질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26절)

(1) _____ (2) _____

• 기도제목

1. [회개] 성령께서 우리속에 내재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케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 [간구] 앞으로는 성령님의 지시에 절대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충만)

3. [도고] 우리 구역이 성령충만하여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7과 창조된 인간의 사명

• 찬송 : 40장, 53장

• 성경 : 창1:24-28

• 요절 : 창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피차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경시하고 상해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형편은 어떤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27절)

하나님은 6일동안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살도록 생물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므로 모든 창조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다.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질문]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창4:24참조)

[답]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학대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질문] 예수님께서서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마6:25) <답> _____

2. 하나님은 인간을 특권과 책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1)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책임”이 있다. 다시말
하면 부패하고 육적인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의 번성
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후손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씀이다.

2)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세상의 모든 산과 바다와 온갖 식물들이 오염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
님의 명령대로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책임
을 다할 때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질문] 세상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롬1:20) <답> _____

• 기도제목

1. [회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 [간구] 우리에게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3. [도고] 앞으로는 내 형제, 자매의 생명을 존중히 여가게 하시고, 후손들
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8과 사람이 보전할 생명

• 찬양 : 89장, 94장

• 성경 : 수 20:1-9

• 요절 : 수 20:2-3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지난 7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 하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보전에 대한 것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1. 생명 보전을 위한 도피성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에게는 절대선이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막10:18). 따라서 인간의 실수와 범죄는 아담 범죄 이후 계속되어져 왔다. 죽이고 죽이는 살상의 연속이었다. 구약에 보면 심지어 부지중에 살인하게 된 경우에도 그를 원수로 여겨 보복 살인을 하려고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고의적인 살인자에게는 사형에 처하더라도 부지중에 오살한 자는 살리려고 모세를 통해 도피성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이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피의 보복보다도 생명이 보전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알수있다. 도피성을 만들어 살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즉 살인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원하신 것이다. 오늘날처럼 생명 경시풍조가 만연된 현상에서 도피성이 주는 교훈을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질문] 십계명중 생명과 관계된 것은 몇 계명인가? <답> _____

이제 우리는 이 사회가 형벌 위주의 사회가 아닌 관용과 사랑으로 선도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남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되도록 너도 나도 앞장 설 때이다.

2. 도피성은 구원의 예표가 된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도 끔찍한 금수보다 못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단지 몇푼의 용돈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어린생명을 생매장하는가 하면, 어린이, 부녀자들을 납치하여 인신매매를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가나 기업이 한 생명을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기계처럼, 노예처럼 부리고 일을 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도피성은 모든 위협과 인간 상실로부터 벗어나 안전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되는 곳이다. 살인자가 살 곳은 오직 도피성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멸망할 수 밖에 없다. 요14:6절에서 예수님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

[질문] 요일2:2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답> _____

• 기도제목

1. [회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 [간구] 현대의 상실되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몸 뿐 아니라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도고]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진력을 다하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사랑 큰잔치”가 열매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9과

환경파괴의 실상과 기독교인의 책임

• 찬송 : 78장, 88장

• 성경 : 롬11:33 - 36

• 요절 :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
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을 지으시고 피차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 가면서 살도록 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지나친 이기심이 환경을 훼손함으로 환경의 위기를 맞게된 것이다. 결국 그로인해 인간이 가장 심한 피해를 받게된 것이다. 본 과에서는 인간의 경쟁심과 이기심이 가져온 환경 파괴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

1. 환경파괴의 실상

전에는 국가발전을 위해, 기업의 원활한 활성을 위해 어느정도의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극단적 이윤 추구는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환경 파괴의 현실은 어떠한가? 60년 이내에 바다수면이 1.5m 높아지고 지구의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1백년 후면 한반도 연근해의 수온이 지금보다 평균 섭씨 4도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같은 수온상승 현상으로 인해 남해안 지역의 경우 김, 미역 등의 양식은 부적합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나친 벌목으로 산림의 훼손은 산야가 자생력을 잃어 생존에 필요한 산소 부족으로 대기 정화력을 상실해

가고있다. 또한 산림파괴는 산림과 연관된 생물체들의 멸종으로 이어지는데, 희귀종 동물, 조류들의 등장이 급세기가 가기전에 크게 증가할 것이다.. 급속한 산업화는 각종 산업 폐기물과 화학산업들에 의해 극심한 유해물질을 배출하였는데, 이는 인간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유전공학은 창조질서의 균형을 깨고 생명체들을 기형으로 만드는데가 하면, 정상적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환경 파괴는 생명의 존엄성 상실은 말할 것도 없고 창조신앙에 절대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대로 환경을 방치한다면 금세기 말이나 적어도 21세기 초반이면 환경 파괴의 정도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심화하여 모든 생물체들은 존속하는 데 절망적이 될 것이다.

2. 기독교인의 책임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면 결국 인간 자신까지 훼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와해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만 하는 근본 이유이다..

하나님은 환경이 잘 보전되도록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신탁자로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창1:28).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요 최고 지배자로서 이들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 인간은 단지 이들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만을 위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환경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만 해야한다. 나아가 인간은 환경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권리뿐만 아니라 미래에 살 사람들을 위해서도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은 인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인간은 환경의 혜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 기도제목

1. [회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인간 생명이 위협

받게 만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 [간구] 인간의 이기심과 국가간, 기업간의 지나친 경쟁이 사라져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세상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3. [도고] 세상의 물질을 신으로 삼지말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죄를 물리치고 소망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주이 말씀대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 날의 기도와 그 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